

단지방범은 로봇에게, 몸 아프면 경비실로 아파트가 똑똑해진다

입주자들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는 첨단 아파트들을 찾아가 보았다.

에디터 | 최보윤 · 자료제공 | 남광토건, 동부건설, 롯데건설



- 1 동부건설에서 선보인 주민 친화형 경비실 '스마트 하우스'.
- 2 동부건설 '스마트 하우스' 내부.
- 3 방범 로봇 '센트리'.

‘아파트는 지어놓으면 팔린다’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찬바람만 뽀뽀 분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자 건설사들마다 미분양 타개책으로 ‘첨단 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호텔급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를 선보이는데, 황사농도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택배, 방범 로봇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방배동 롯데캐슬’에 단지 내 화상통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세대 벽면에 부착된 단말기 ‘월패드(Wall Pad)’의 카메라를 통해 입주자 간에 무료로 화상통화를 즐길 수 있으며, 부재 중에 손님이 방문할 경우 손님이 화상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추후 화상통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집 밖에서도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집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노약자나 환자,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부건설은 기존의 감시 기능만이 강조된 무미건조한 경비실을 탈피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개념의 주민 친화형 경비실인 '스마트 하우스'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스마트 하우스는 입주자와 방문객이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사랑방 개념의 게스트 라운지,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건강체크존, 입주민의 편의를 배려한 무인택배 시스템, 단지 내 방범 시스템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첨단 경비 시큐리티존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춰 센트레빌만의 차별화된 고급형 경비실로 꾸몄다. 동부건설은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남양주 진접 센트레빌에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후 분양되는 단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최초 단지방범 로봇 등장

동부건설은 아파트 단지 외곽에 설치되는 방범 로봇을 개발하여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마쳤다. '센트리'로 이름 지어진 센트레빌 단지방범 로봇은 반경 50m 범위를 360도 회전하며 주변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화면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와 야간 동체 인식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이상 감지 시 경고방송과 경고음을 발생하며, 이를 출동 경비업체에 발송하여 단지방범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더불어 추가 센서(풍속기, 레인 센서 등)를 이용한 정보수집 기능과 단지 내 음악 방송과 안내방송의 기능을 더하여 입주자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CCTV와 모양에서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된 '센트리'는 센트레빌만의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 안에서 누리는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

서비스레지던스, 고급 실버타운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호텔형 서비스의 혜택을 일반 주거 공간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남광토건은 대전 문화동에 분양할 '하우스토리' 아파트에 룸메이드 서비스, 클린 서비스, 라운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무인택배 서비스, 콜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봄·가을 침대 매트리스 세탁, 카펫 향균 클리닝 등의 룸메이드 서비스를 실시하며, 월 1회 세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호텔 커피숍 같은 라운지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입주자 간의 교류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인택배 시스템을 도입해 화물의 수송과 수령, 등기우편물 수취, 세탁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휴대폰 번호 노출을 없애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신 개념의 차주 호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호텔형 서비스 제공은 편리함은 물론 우대 받는다는 느낌을 줘 입주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건설업체들은 청정환기 시스템, 빨래건조 시스템, 전자책 도서관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주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의 주거 서비스가 단순히 아파트 건물에 생긴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입주에 앞서 청소를 해주는 등의 원시적인 수준의 것에서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았던 첨단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층 업그레이드 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적용이 분양 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약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